

전방 십자 인대의 점액양 변성 – 추시결과 – Mucoïd Degeneration of the Anterior Cruciate Ligament, Revisited

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울산대학교병원 정형외과학교실

조성도 · 염윤석 · 정창윤 · 박한창

목 적

전방 십자 인대 점액양 변성의 임상 양상 및 치료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.

대상 및 방법

1999년 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전방 십자인대 점액양 변성으로 진단되어 치료한 환자 중 1년 이상 추시가 가능하였던 66명 68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. 평균 연령은 52세 (35~75세) 였으며 남자는 13명 여자는 53명이었다. 모든 환자에서 주증상은 외상의 병력이 없이 활동에 의해 악화되는 슬관절의 둔통이었으며 62례(91.2%) 환자에서 신전 종말 동통 (Bounce-home like phenomenon)을 호소하였다. 술 전 신전 제한은 56례(5~20도, 82.4%), 굴곡 제한은 36례(90~130도, 52.9%)에서 관찰되었다. 모든 예의 자기 공명 시상면 영상에서 전방 십자 인대가 신호강도의 증가를 동반한 미만성 비후 소견을 보였다. 관절경 소견 상 대부분 전방 십자 인대의 전반적인 비후로 인한 절흔 충돌과 외측 구획으로의 돌출이 관찰되었다. 관절경 하에 전방 십자 인대 부분 절제술 및 경우에 따라 절흔 성형술을 시행하였다. 동반 병변으로 반월상 연골 파열 33례(48.5%), Outerbridge Grade II이상의 연골의 퇴행성 변화가 56례(84.8%)에서 보였으며, 2례를 제외한 모든 예에서 ligamentum mucosum이 관찰되지 않았다. 술 후 임상적 결과 평가를 위해 동통 및 운동 범위의 변화, Lachman test, Pivot shift test, KT-1000 관절계 검사, Lysholm score를 분석하였다.

결 과

신전 종말 동통을 호소하는 62례 중 58례(93.5%)에서 동통이 소실되었으며, 술 후 신전 제한은 56례 중 49례(87.5%)에서, 굴곡 제한은 36례 중 33례(91.7%)에서 정상으로 회복되었다. 술 전 Lachman test 및 Pivot shift test는 모든 환자에서 음성이었으며 술 후 Lachman test상 7례(10.3%)에서 2+ 양성, Pivot shift test상 6례(8.8%)에서 1+ 양성으로 나타났다. KT-1000 관절계 검사상 술 후 7례(10.3%)에서 5 mm 이상 차이를 보였으며, 3례(7.4%)에서 전방 불안정성으로 인한 증상을 호소하였다. Lysholm score는 술 전 평균 54(32~63)에서 술 후 평균 79.8(69~91)로 향상되었다.

결 론

전방 십자 인대의 부분 절제술 및 필요에 따른 절흔 성형술에 의해 점액양 변성에 의한 동통 및 운동 장애의 호전을 얻을 수 있으나 술 후 전방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증상 발생 유무를 추시 관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.